

중학교 6월민주항쟁 30주년 계기수업 기획(안)



1. 수업 계획

민주화운동사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현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먼 역사로 여겨진다. 민주화운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은 종종 현재에도 생존해 있는 민주열사들을 '조상님들'로 묘사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 태어난 오늘의 학생들에게 그 시대 상황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실은 우리 사회가 겪은 민주화운동의 경험들은 현재의 헌법 체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여전히 우리의 현재를 생각하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다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왜 치열했던 역사적 경험을 겪었음에도 과거의 잘못들은 극복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또 힘의 싸움 속에서 독재 권력을 물러나게 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성과를 이뤄낸 '우리'가 또 다른 부패 권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전의 군사정권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은 아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권력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통령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사건들에는 그를 선택한 국민들의 책임도 따르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과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화운동사 수업은 학기말에, 주로 개별 사건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통사로 편재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와 개별 사실을 알아야 비역사적인 수업이 되지 않는다는 족쇄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보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알고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구상해보는 것은 후속 작업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아쉬움을 줄이기 위하여 이 수업에서는 내용의 양은 축약하거나 간소화하여 다루었다. 대신 과거와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보며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루었던 성과와 놓쳤던 점 등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해보려 하였다. 특히 2017년 올해는 198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역사를 공부하며 학생들은 자연스레 현재를 떠올려 보게 될 것이다. 모쪼록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참여와 연대'를 배우고 나누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업안은 2차시로 구성되었다. 크게 1980년 5·18민주화운동부터 1987년 직전과 1987년 6월민주항쟁 자체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차시에는 6월민주항쟁이 일어나기 전 1980년대 사람들이 겪었던 폭력과 회유를 안내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어 2차시에는 6월민주항쟁이 일어날 당시, 시민들이 생각했던 시대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체험하도록 지도하고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시대 과제를 생각하고 공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한다. 부족한 수업안이지만 모쪼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파워포인트 및 수업안 등에 '내가 수업을 하였다면 어땠을까?'를 고민하며 발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보았다. 특히 파워포인트 노트에 쓰인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하시려는 선생님께서는 파워포인트 인쇄 시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하시면 좀 더 참고하시기에 편리할 것이다.

2. 교수학습과정안

단계	학습내용	학습활동
1차시 민주화운동의 기폭제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독재 정권의 폭압 편 가르기와 연대	<p>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p> <p>① 도입: 세월호 사건과 우리의 양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전 지식 점검</p> <p>②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 폭압과 회유</p> <p>③ 5·18민주화운동과 연대</p> <p>④ • 폭력과 고문, 독재 정치를 멈추려는 노력 •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이한열 사망사건 • 6월민주항쟁</p> <p>⑤ 한걸음 더: 2017년 현재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담은 손퍼켓 만들기</p>
2차시 민주화운동의 어제와 오늘	6월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의 힘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만든 실천 우리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	<p>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p> <p>① 도입: 애국 강요와 시대정신(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p> <p>② • 1980년대 사람들이 만들려 했던 세상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 고문 없는 사회 • 민주주의 정부(대통령 직접 선거) • 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의 결의문 분석</p> <p>③ 시민들의 참여 노력 • 땡전뉴스(9시뉴스) 때 소등 • 대다수 시민의 참여: 경적 울리기, 6시 집회, 애국가 등</p> <p>④ 한걸음 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2017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아이에게 하는 우리들의 약속</p> <p> 사례 지방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돕기 위해 버스비를 모금한 고등학생들</p>

(역사)과 교수·학습 과정안 1

단원명		Ⅲ. 대한민국의 발전	차시	1/2	대상	중3
소단원명		2)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다				
성취기준		6월민주항쟁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한다.				
교수·학습자료		PPT, 학습지, 손피켓을 만들 큰 종이, 매직 혹은 사인펜				
단계	주요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협력학습 활동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p>교 (피피티의 문구를 하나씩 읽어줌.) 한 신문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 무력감, 불신 그리고 내가 세월호에 오른 학생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부채의식도 느끼고 있었습니다.</p> <p>교 30년 전의 사람들도 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 나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p> <p>5·18민주항쟁 사진 제시【전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가 PPT화면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면 학생들은 눈으로 잠시 사진을 보며 당시의 분위기를 읽는다. <p>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등의 말이 나온다. 			5분	PPT (슬라이드 1-11) - 유 5·18민주화운동은 초등학교 때에 배운 것으로 가정한다.
	성취기준 제시	<p>교 우리는 1987년 6월 그 때, 사람들의 양심을 울렸던 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주제를 함께 읽어 봅시다.</p> <p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5월 광주의 사람들이 1987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다.</p> <p>교 그럼 지금부터 과거를 배우며 오늘의 우리를 찾아봅시다.</p>				
전개	5·18 민주화 운동 이후의 상황 알아보기	<p>교 왜 5월의 광주는 1980년대 사람들에게 무거운 이름으로 남았을까요?</p> <p>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전체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위대책위원회 설립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정치인 위축 언론인 강제 해직 및 삼청교육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과 각종 규제 해지(교복과 두발 자율화, 통금 해제, 프로야구 창단 등) <p>1980년대 연대의 노력【전체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들의 5·18민주화운동 계승 노력 반미 투쟁 야학을 통한 노학연대 재야 정치인들의 직선제 개헌 제안 			8분	PPT (슬라이드 12~37) - 유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현재의 역사임을 기억하도록 해준다.

	<p>당시 인물이 되어 경험 나누기</p>	<p>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사람들이 직접 겪었던 사건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p> <p><u>이야기 나누기 활동 [조별학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각각 제시된 4명의 인물 중 하나의 인물을 골라 그 인물의 상황을 보고 했을 법한 이야기를 구성해 본다. •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되 처음에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도록 지도한다. • 두 번째로 돌아가며 이야기 할 때에 청중들은 탄성을 피우거나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듣도록 지도한다. • 둘 사이의 차이를 느끼면서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공유하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p>10분</p>	<p>PPT (슬라이드 38)</p> <p>-</p> <p>유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몸의 변화를 익히도록 돕는다.</p>
	<p>6월 민주항쟁의 시작 알아보기</p>	<p>교 우리가 간접 경험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독재 정권의 강압과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사람들은 광주를 기억하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p> <p><u>폭력과 고문, 독재 정치를 멈추려는 노력 [전체학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 6월민주항쟁 	<p>2분</p>	<p>PPT (슬라이드 39~44)</p>
<p>전개</p>	<p>글쓰기 활동</p>	<p>교 2017년의 우리는 고문이 없는 사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p> <p>교 30년 전의 광주는 눈에 보이는 폭력과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7년 촛불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쩌면 ‘환호 속의 경중’을 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이지요.</p> <p>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꿈꾸며 어떤 사회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손피켓을 써 봅시다.</p> <p><u>토론 활동 [조별학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쓴다. • 조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사회를 들여보며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여 적는다. • 내가 말한 것과 친구들이 말한 것을 종합하여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정리한다. <p><u>손피켓 만들기 활동 [개별학습]</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게 만든 손피켓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구호를 쓴다. • 손피켓이 완성되면 몇 명씩 돌아가며 읽어보도록 한다. • 인상 깊은 구호는 친구들과 함께 외쳐본다. 	<p>15분</p>	<p>PPT (슬라이드 45~51)</p> <p>-</p> <p>유 6월민주항쟁의 경험은 30년을 넘어서 현재의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현재의 역사임을 기억하도록 해준다.</p> <p>유 활동이 거의 끝날 무렵 바위섬을 들려준다. 바위섬은 고독의 ‘섬’ 광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준다.</p> <p>PPT (슬라이드 52)</p>
<p>정리</p>	<p>정리 학습</p>	<p>교 1987년 사람들은 광주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3년 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했던 한 사람의 말이 머리에 맴돕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p>	<p>5분</p>	<p>PPT (슬라이드 53)</p> <p>-</p> <p>jtbc 뉴스룸, 뒷일을 부탁드립니다.</p>